

2016. 01. 04. ~ 01. 10.

주간

67

VOL

전남농업정보



■ 주간 기상전망

■ 농산물 재배 동향

■ 시·군 농정 동향

■ 저비용·고소득 농업기술정보

■ 정책동향

■ 수출입 동향

■ 해외농업 정보



전라남도
JeollaNamdo

요 약

❁ 주간 기상전망 5

- 찬 대륙고기압의 확장으로 8일 오후부터 9일 오전까지 눈 또는 비가 오겠고, 그 밖의 날은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들어 가끔 구름이 많겠음.
- 기온은 평년보다 중반에는 낮겠으나, 그 밖의 날은 비슷하거나 높겠음.
- 강수량은 평년(0~1mm)과 비슷하겠음

❁ 농작물 병해충 발생정보 8

- 시설 채소작물의 병해충 주의보

❁ 농산물 재배 동향 12

- 2016년산 고추 · 마늘 · 양파 재배 동향

❁ 주요 농축산물 가격정보 13

❁ 전남 시·군 농정 동향 18

- ▶ 나주로컬푸드직매장 빛가람점 “성공적인 안착”
- ▶ 올해 귀농·귀촌사업, 전국서 장성이 가장 잘했다!

❁ 저비용·고소득 농업기술 정보 22

- ▶ 콩 유기재배 종합기술 현장 실증사업 결과
- ▶ 흙토람, 새해부터 더 편리해진다
- ▶ 농촌진흥청, ‘신기술로 무장한 수출 농업’ 발간
- ▶ 비파 자반증은 봉지씌우기로 예방가능
- ▶ 한라봉 자근 피해 걱정 이제 끝!

❁ 정책 동향 30

- ▶ 농식품부, 「중장기 쌀 수급안정 대책」 마련
- ▶ 농업·농촌에 대한 2015년 국민의식 조사결과
- ▶ 2016년 달라지는 농정 시책

❁ 농림축산식품 수출입 동향 37

- ▶ 이슬람권 농식품 시장 수출 동향 및 잠재성
- ▶ “명품 한우” 홍콩 쇠고기시장 문을 열다!

❀ 해외 농업정보 41

▶ 해외곡물시장 일일시황(시카고 선물거래소)

- 밀 : 연말 잠잠한 거래에 혼조세를 보이다 숏커버링의 영향과 미국 미드웨스트 지역 홍수, 러시아 겨울 밀 일부 지역의 냉해 우려 등의 영향으로 강보합 마감함
- 옥수수 : 연말 거래에 혼조세를 보였고 전세계 공급과잉과 미국산 옥수수에 대한 수요 약세와 아르헨티나와의 경쟁 강화의 위기를 극복하지 못하고 약보합 마감함
- 대두 : 기술적 매입세로 상승했던 전일과 달리 브라질 대두 생산 주요 지역의 강우가 다시 한 번 부정적인 영향을 미쳐 하락함

❀ 2016년 달라지는 농정시책 42

❀ 사업신청 및 홍보안내 4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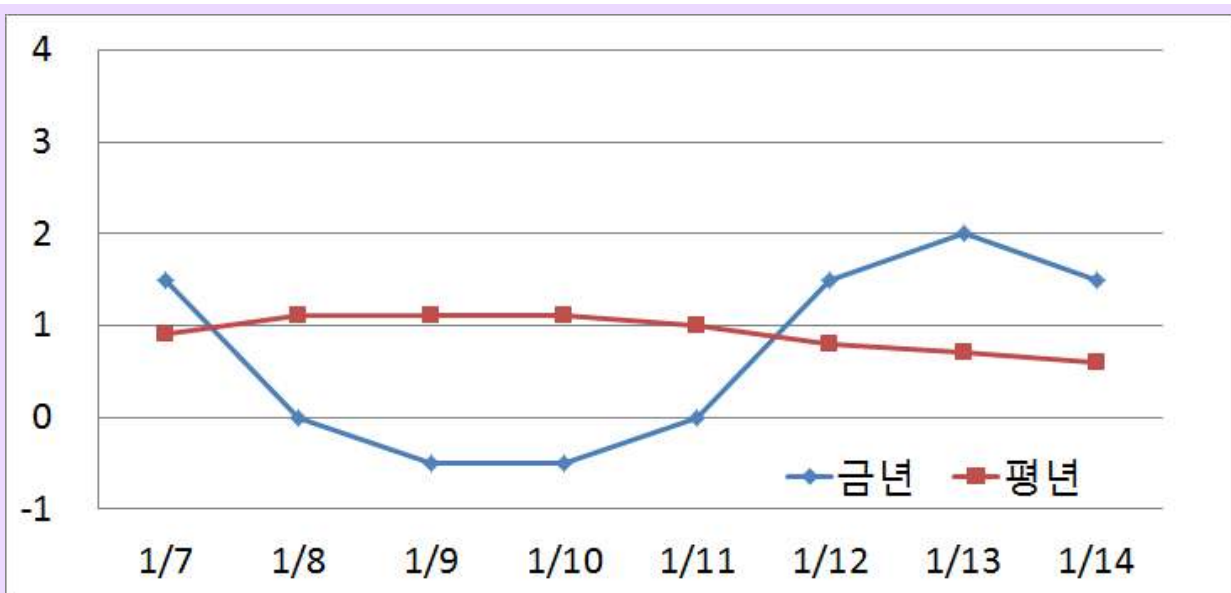
- ▶ 2016 농촌 청년사업가 양성사업 공모
- ▶ 2016학년도 전남생명농업대학 신입생 모집
- ▶ 제 17대 김성일 신임 전라남도농업기술원장 취임

1. 주간 기상전망

■ 기상청 중기예보(광주 기준)

일 별 (월 일)	평균기온(℃)			최고기온(℃)			최저기온(℃)			강수량(mm)
	금년 (a)	평년 (b)	차이 (a-b)	금년 (a)	평년 (b)	차이 (a-b)	금년 (a)	평년 (b)	차이 (a-b)	평년
평 균	0.7	0.9	-0.2	3.3	5.4	-2.1	-1.9	-2.8	0.9	1.2
1. 7.(목)	1.5	0.9	0.6	3.0	5.6	-2.6	0.0	-3.0	3.0	1.3
1. 8.(금)	0.0	1.1	-1.1	2.0	5.6	-3.6	-2.0	-2.7	0.7	1.1
1. 9.(토)	-0.5	1.1	-1.6	2.0	5.6	-3.6	-3.0	-2.6	-0.4	1.4
1. 10.(일)	-0.5	1.1	-1.6	2.0	5.6	-3.6	-3.0	-2.7	-0.3	1.1
1. 11.(월)	0.0	1.0	-1.0	3.0	5.3	-2.3	-3.0	-2.6	-0.4	1.1
1. 12.(화)	1.5	0.8	0.7	5.0	5.1	-0.1	-2.0	-2.8	0.8	1.1
1. 13.(수)	2.0	0.7	1.3	5.0	5.1	-0.1	-1.0	-3.0	2.0	1.4
1. 14.(목)	1.5	0.6	0.9	4.0	5.0	-1.0	-1.0	-3.1	2.1	1.4

* 기온과 강수량은 평균이며, 평년은 1981-2010년까지 30년간 평균값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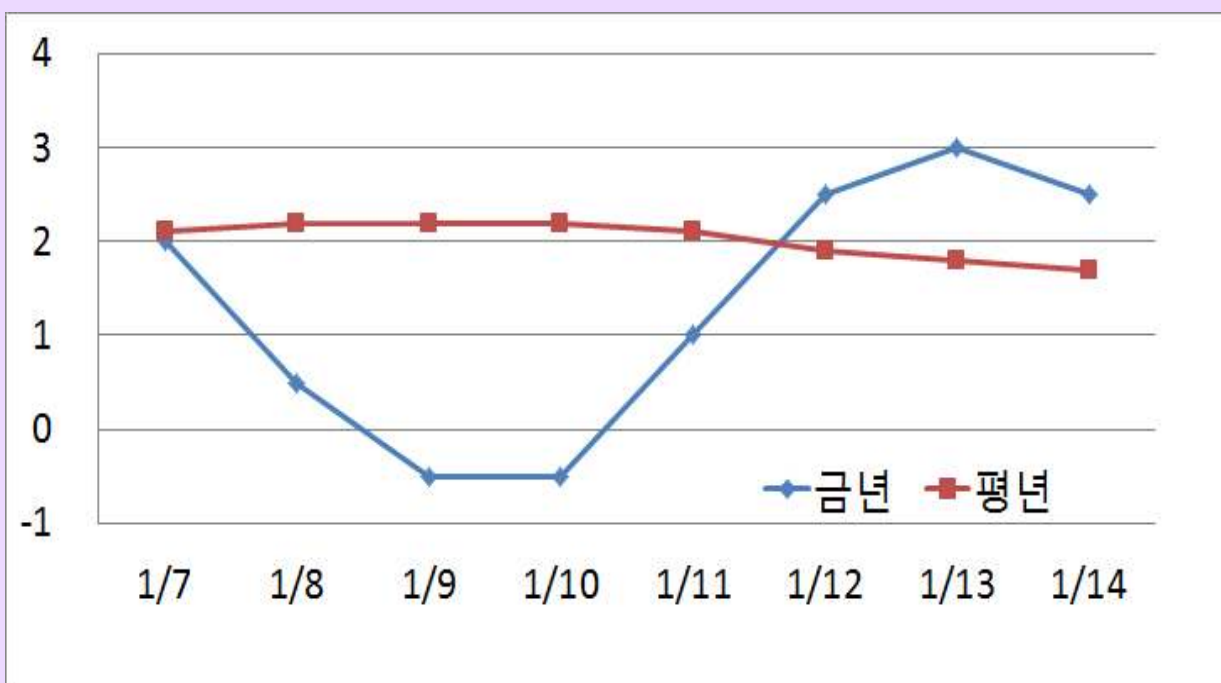


<평균 기온(℃)>

■ 기상청 중기예보(목포 기준)

일 별 (월 일)	평균기온(℃)			최고기온(℃)			최저기온(℃)			강수량(mm)
	금년 (a)	평년 (b)	차이 (a-b)	금년 (a)	평년 (b)	차이 (a-b)	금년 (a)	평년 (b)	차이 (a-b)	평년
평 균	1.3	2.0	-0.7	3.8	6.3	-2.6	-1.1	-1.2	0.1	1.2
1. 7.(목)	2.0	2.1	-0.1	3.0	6.5	-3.5	1.0	-1.3	2.3	1.2
1. 8.(금)	0.5	2.2	-1.7	2.0	6.5	-4.5	-1.0	-1.1	0.1	1.1
1. 9.(토)	-0.5	2.2	-2.7	2.0	6.6	-4.6	-3.0	-1.0	-2.0	1.3
1. 10.(일)	-0.5	2.2	-2.7	2.0	6.5	-4.5	-3.0	-1.1	-1.9	1.1
1. 11.(월)	1.0	2.1	-1.1	4.0	6.4	-2.4	-2.0	-1.1	-0.9	1.1
1. 12.(화)	2.5	1.9	0.6	6.0	6.1	-0.1	-1.0	-1.2	0.2	1.1
1. 13.(수)	3.0	1.8	1.2	6.0	6.1	-0.1	0.0	-1.4	1.4	1.2
1. 14.(목)	2.5	1.7	0.8	5.0	5.9	-0.9	0.0	-1.4	1.4	1.1

* 기온과 강수량은 평균이며, 평년은 1981-2010년까지 30년간 평균값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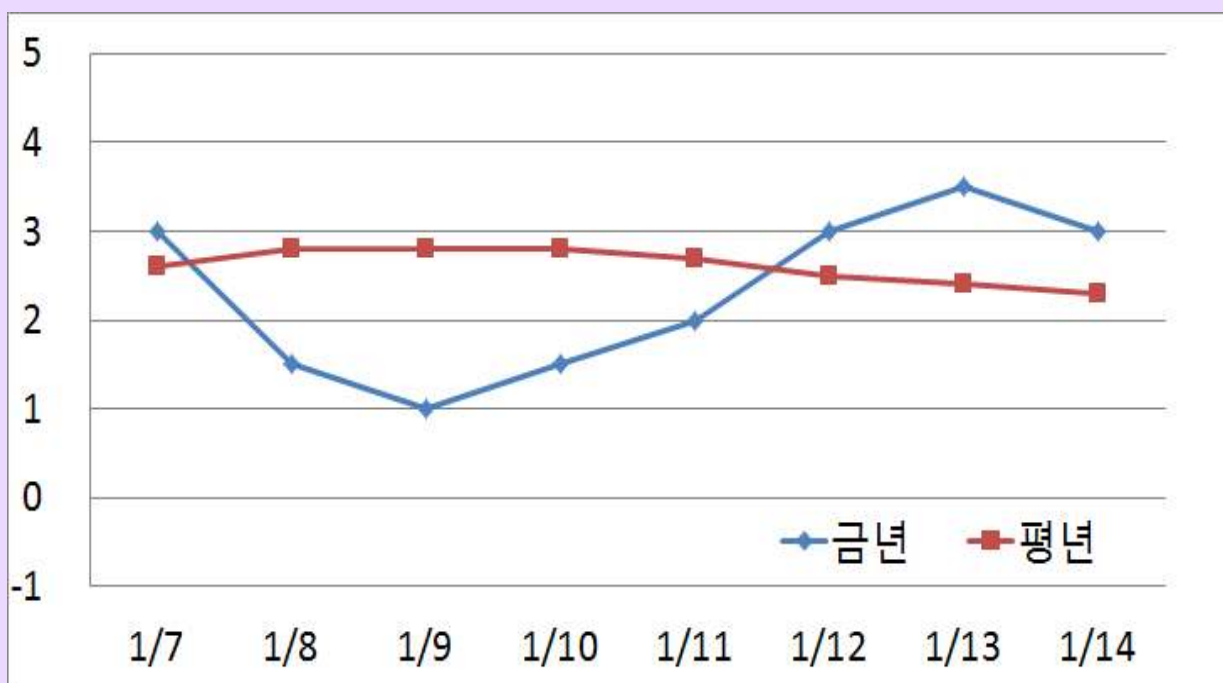


<평균 기온(℃)>

■ 기상청 중기예보(여수 기준)

일 별 (월 일)	평균기온(℃)			최고기온(℃)			최저기온(℃)			강수량(mm)
	금년 (a)	평년 (b)	차이 (a-b)	금년 (a)	평년 (b)	차이 (a-b)	금년 (a)	평년 (b)	차이 (a-b)	평년
평 균	2.3	2.6	-0.3	4.8	6.3	-1.6	-0.1	-0.5	0.3	0.8
1. 7.(목)	3.0	2.6	0.4	4.0	6.5	-2.5	2.0	-0.5	2.5	1.0
1. 8.(금)	1.5	2.8	-1.3	4.0	6.6	-2.6	-1.0	-0.3	-0.7	0.9
1. 9.(토)	1.0	2.8	-1.8	4.0	6.6	-2.6	-2.0	-0.3	-1.7	0.9
1. 10.(일)	1.5	2.8	-1.3	4.0	6.6	-2.6	-1.0	-0.3	-0.7	0.5
1. 11.(월)	2.0	2.7	-0.7	5.0	6.3	-1.3	-1.0	-0.3	-0.7	0.5
1. 12.(화)	3.0	2.5	0.5	6.0	6.1	-0.1	0.0	-0.5	0.5	0.7
1. 13.(수)	3.5	2.4	1.1	6.0	6.1	-0.1	1.0	-0.7	1.7	0.9
1. 14.(목)	3.0	2.3	0.7	5.0	5.9	-0.9	1.0	-0.8	1.8	0.9

* 기온과 강수량은 평균이며, 평년은 1981-2010년까지 30년간 평균값임



<평균 기온(℃)>

2. 농작물 병해충 발생정보

□ 시설 채소작물의 잣빛곰팡이병·균해병·노균병·역병 : 주의보

- 딸기·토마토·고추·상추 등의 잣빛곰팡이병은 시설 내의 온도가 20℃ 전후로 낮고 습도가 100%에 가까울 정도로 높은 조건에서 발생하는데 11월 중순부터 일조시간이 적고 비가 자주 내려 초기 방제에 실패한 경우 심하게 발생하고 있음.
- 병든 식물체의 병원균 분생포자가 바람에 날아가 인근 포기로 쉽게 전염되므로 병든 식물은 시설 밖으로 빼내어 소각하거나 땅속에 묻어 전염원을 차단하여야 함.
- 적절한 환기로 시설 내의 습도를 낮추어 주되 보온에 유의하고, 시설 내에서 병이 발생되면 급속하게 번지는 특성이 있으므로 발생 초기에 적용약제로 방제하되 약제를 바꾸어 가며 사용해야 함.
- 날씨가 흐려 기압이 낮을 경우에는 훈연제를 활용하여 방제하는 것이 효과적임.
- 오이·토마토·고추·딸기·상추 등의 균핵병은 잣빛곰팡이병과 비슷한 환경에서 발생하는 병으로 질소질 비료를 많이 주어 작물체가 연약하게 자랄 때, 연작에 의하여 병원균 밀도가 높을 때 많이 발생함.
- 적절한 환기와 보온으로 시설 내의 온도를 20℃ 이상으로 유지하고, 병든 식물은 바로 없애주며 잣빛곰팡이병과 동시 방제
- 참외·오이·상추 등의 노균병은 시설 내의 습도가 높고 온도가 낮은(20℃ 전후) 조건에서 발생이 많고, 햇볕 투과량이 부족하거나 거름기가 모자라 작물 생육이 왕성하지 못할 때 급속히 확산됨.

- 야간에 보온관리를 잘하여 저온이 되지 않도록 하고, 웃거름 주기, 열매숙기와 햇볕쪼임을 좋게 하여 강건하게 생육하도록 함과 동시에 시설 내의 습도가 높아지지 않도록 환기를 잘 해야 함.
 - 특히 오이 시설재배 중 환기를 시키는 과정에서 찬바람이 식물체에 직접 닿을 경우 노균병 발생이 심하게 되므로 환기를 할 때 유의
 - 또한 병이 발생된 포장은 병든 잎을 일찍 따서 시설 밖으로 빼낸 다음 발생 초기에 적용약제로 방제해야 함.
- 토마토 역병은 기온이 낮고 비가 잦으면 심하게 발생하여 치명적인 피해를 주는 병해로서 1~2주만에 전 포장을 황폐화시키기도 함. 밤 기온은 낮고, 낮에는 따뜻하여 일교차가 크고 다습할 때 심하게 발생하며 온도는 3~26℃사이에서 발병되는데 발병 최적온도는 18~22℃임.
- 환기를 철저히 하여 시설 내가 과습하지 않도록 하고, 잦은 관수를 피하고 배수가 잘 되게 관리
 - 항상 포장을 청결히 하고 병든 잎이나 줄기는 조기에 제거하여 불에 태우거나 땅속 깊이 묻고 예방적으로 적용약제를 살포
- 흰가루병은 하우스 등 시설재배에서는 분생포자가 공기로 전염되며, 일반적으로 15~28℃에서 많이 발생하고 32℃이상의 고온에서는 발생이 줄어들음.
- 햇볕 쪼임이 부족하고 밤낮의 온도차이가 심하며 비료기가 많은 조건에서 발생이 많으므로 병든 식물은 속히 제거하고 질소가 과용되지 않도록 균형시비를 하면서 병 발생 초기에 적용약제로 방제

■ 토마토황화잎말림병(담배가루이)·토마토반점위조병(총채벌레)

- 토마토황화잎말림병(TYLCV)은 담배가루이, 토마토반점위조병(TSWV)은 총채벌레가 전염시키는 바이러스 병으로 발생초기에 방제적기를 놓칠 경우 피해가 심하게 발생함.
- 병을 전염시키는 해충의 세대 기간이 짧아 연간 발생횟수가 많고 증식률이 높으므로, 방충망을 이용하여 유입 방지 및 발생초기 적용 약제로 방제하고, 육묘 시 철저한 관리로 병이 확산되는 것을 예방
- 발생된 시설재배 농가 주변지역은 기주식물이 되는 잡초를 제거하고 병이 걸린 식물체는 즉시 제거하여 소각

■ 총채벌레류·오이류·진딧물·담배가루이·온실가루이

- 꽃노랑총채벌레, 오이총채벌레 등 총채벌레는 오이·고추·토마토·국화·거베라·장미·감귤 등 시설 내에서는 연중 발생하는 해충으로, 초기에 발생 상황을 알지 못하여 피해를 입는 경우가 많고 바이러스병을 전염시켜 큰 피해를 줌.
- 담배가루이, 온실가루이는 가지과 작물에서, 진딧물은 엽채류에 주로 발생하며 식물체의 즙액을 빨아먹는 직접적인 피해와 그을음병을 유발하여 상품성을 떨어뜨리고, 딸기가 점박이응애의 피해를 받으면 잎이 누렇게 변하여 말라죽게 됨.
- 이들 해충은 초기에 방제해야 효과적이므로 끈끈이트랩을 활용하여 주의 깊게 예찰하고, 발견 초기에 적용약제로 방제

□ 검역병해충 : 국화줄기괴저바이러스병, 딸기세균모무늬병

- 국화줄기괴저바이러스병이 경남과 부산지역을 중심으로 국화에 발생하여 큰 피해를 주고 있는데, 국화 줄기에 괴사 증상을 보이고 잎이 황화되거나 괴사 반점이 생기는데 감염이 심하게 되면 시들음 증상을 보임.
- 이 병은 꽃노랑총채벌레에 의해 전염을 하는 동시에 잎이나 줄기의 상처 등을 통해서 전염되고, 특히 감염된 식물체에서 삼수를 채취할 경우 급속하게 다른 지역으로 전파됨.
 - 토마토나 고추 같은 가지과 작물도 기주이기 때문에 이 병을 방제하기 위해서는 감염된 주는 즉시 제거 소각하고, 총채벌레 방제를 철저히 해야 하는데 청색끈끈이 트랩을 약 5m 간격으로 설치하고 총채벌레가 서식할 수 있는 주변 잡초를 제거
 - 적심 또는 절화 작업 시 바이러스 즙액 전염 억제용 가위를 사용하고, 발병된 포장이나 그 인근 포장에서도 증식용 삼수 채취 금지
- 딸기세균모무늬병은 발생 초기 잎 뒷면에 작은 수침상(뜨거운 물에 데친 모양)이 나타나고 점차 확대되어 잎 앞면에 점무늬를 형성. 후기의 병반은 세균 누출액으로 덮여 빛이 나고, 잎 전체가 마르면서 갈색으로 변색되고 잎이 탈락하게 됨. 세균 누출액이 튀거나 접촉으로 번지게 되고 딸기 러너에 의해 확산됨.
 - 최근 일부 지역에서 발생하고 있으며, 모주를 통해 전염되므로 병에 걸린 포기는 제거하여 태우거나 땅에 묻고, 병에 걸렸던 포장은 물론 감염 지역의 딸기도 모주로 사용하지 말아야 함.

* 자료 출처 : 농촌진흥청

3. 농산물 재배 동향

2016년산 고추·마늘·양파 재배 동향

- 2016년산 고추·마늘·양파 재배면적 평년 대비 10% 이상 감소 전망
 - 2016년산 고추 초기 재배의향은 2015년산 산지가격 하락과 노동력 부족으로 전년 대비 4%, 평년 대비 20% 감소 전망
 - 2016년산 마늘 재배면적은 2015년산 가격 상승으로 난지형 대서종을 중심으로 전년 대비 7% 증가하나, 평년 대비 15% 감소 전망
 - 2016년산 양파 재배면적은 중만생종이 전년과 비슷하나, 조생종이 큰 폭으로 증가하여 전년 대비 3% 증가할 것으로 보이나, 평년 대비 13% 감소 전망

□ 양념채소 생산 전년 및 평년 대비 증감률

	2016년산 건고추 재배의향	2016년산 마늘 재배면적	2016년산 양파 재배면적	봄대파 정식의향면적
전년대비	-3.7	6.5	2.9	6.4
평년대비	-19.6	-14.7	-12.9	-

* 출처 : 한국농촌경제연구원

4. 주요 농축산물 가격정보

□ 품목별 도·소매 정보

(2016. 01. 04. 기준/단위 : 원)

부류	품 목	전국 평균 도매가격(상품기준)						등 락 률(%)	
		판매 단위	당일 (01/04)	1주일전 (12/28)	1개월전	1년전	일평년	전년 대비	평년 대비
식 작 물	쌀(일반계)	20kg	36,200	36,200	36,850	41,400	42,267	↓12.6	↓14.4
	콩(백태)	35kg	148,400	148,400	147,400	138,000	185,267	↑7.5	↓19.9
	고구마(밤)	10kg	22,800	22,400	22,200	21,400	24,027	↑6.5	↓5.1
	감자(수미)	20kg	26,000	25,600	25,600	21,650	28,070	↑20.1	↓7.4
채 소 류	배추(가을)	1kg	420	430	465	380	416	↑10.5	↑1.0
	양배추	10kg	4,000	3,700	3,750	5,000	7,687	↓20.0	↓48.0
	오이(다다기계통)	10kg	31,333	35,000	54,250	40,222	33,372	↓22.1	↓6.1
	애호박	8kg	23,400	25,000	32,950	25,500	24,640	↓8.2	↓5.0
	토마토	10kg	22,600	23,200	18,250	24,400	32,007	↓7.4	↓29.4
	무(가을)	20kg	-	8,600	9,500	9,000	12,140	-	-
	당근	20kg	24,400	24,000	25,250	16,200	21,880	↑50.6	↑11.5
	건고추(화건)	60kg	786,000	792,000	806,000	830,000	883,333	↓5.3	↓11.0
	풋고추	10kg	35,600	51,000	31,550	80,650	57,663	↓55.9	↓38.3
	마늘(깐마늘)	20kg	143,000	143,000	138,000	93,000	109,600	↑53.8	↑30.5
	양파	20kg	34,200	33,200	35,150	10,400	16,953	↑228.8	↑101.7
	대파	1kg	2,050	1,980	2,140	1,340	1,692	↑53.0	↑21.2
	파프리카	5kg	25,800	23,800	18,800	31,200	31,540	↓17.3	↓18.2
	방울토마토	5kg	16,600	15,000	9,550	18,050	22,680	↓8.0	↓26.8
	수박	1개	21,200	19,400	14,150	13,500	12,967	↑57.0	↑63.5
과 일 류	사과(후지)	10kg	35,800	35,400	36,400	36,400	49,569	↓1.6	↓27.8
	배(신고)	15kg	43,800	43,600	43,600	33,750	42,820	↑29.8	↑2.3

부류	품 목	전국 평균 도매가격(상품기준)						등 락 률(%)	
		판매 단위	당일 (01/04)	1주일전 (12/28)	1개월전	1년전	일평년	전년 대비	평년 대비
특용 작물	참깨(백색)	30kg	529,000	529,000	534,000	514,000	561,667	↑2.9	↓5.8
	느타리버섯	2g	11,200	11,600	11,650	12,650	12,007	↓11.5	↓6.7
	새송이버섯	2kg	8,000	8,200	8,400	8,200	8,990	↓2.4	↓11.0
축 산 물 (소매가)	쇠고기(한우등심)	100g	7,850	7,812	7,826	6,449	6,212	↑21.7	↑26.4
	돼지고기(삼겹살)	100g	1,747	1,984	1,920	1,846	1,717	↓5.4	↑1.7
	닭고기	1kg	5,740	5,600	5,105	5,247	5,531	↑9.4	↑3.8
	계란(특란)	30개	5,275	5,599	5,529	5,758	5,546	↓8.4	↓4.9
	우유	1리터	2,550	2,550	2,550	2,548	2,389	↑0.1	↑6.7

* 자료 출처 : aT KAMIS(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

□ 가축 및 축산물 산지시세

(2016. 01. 04. 기준)

구 분		금주가격	전주가격	1년전	등 락 률(%)	
					전주 대비	전년 대비
큰 소 (600Kg)	암	5,782 천원	5,683 천원	4,584 천원	↑ 1.7	↑ 26.1
	거세	6,528 "	6,402 "	5,192 "	↑ 2.0	↑ 25.7
송아지 (6~7월)	암	2,617 "	2,576 "	1,713 "	↑ 1.6	↑ 52.8
	수	3,134 "	3,072 "	2,265 "	↑ 2.0	↑ 38.4
육우(600Kg)		3,454 "	3,284 "	3,358 "	↑ 5.2	↑ 2.9
젖소수송아지(7일령)		205 "	218 "	39 "	↓ 6.0	↑425.6
돼지(110kg)		317 "	298 "	396 "	↑ 6.4	↓ 19.9
육계(원/kg)		1,660 원	1,623 원	1,658 원	↑ 2.3	↑ 0.1
계란(원/특란10개)		1,017 "	1,036 "	1,356 "	↓ 1.8	↓ 25.0
오리(원/kg)		1,833 "	1,833 "	2,667 "	-	↓ 31.3

* 자료 출처 : 축산물품질평가원

<축산 사육 동향 및 가격 동향>

□ 한육우

○ 금년 1월 한우 도매가격 전년 대비 강세 전망

- 한우고기 공급 감소로 내년 1월 1등급 도매가격 전년 동월보다 23~37% 상승한 17,000~19,000원/kg(지육) 전망

○ 한우 1등급 도매가격 전망치

단위: 원/지육kg/(만원/600kg)

구 분	지난 12월	금년 1월	2월
2015년	17,440(627)	17,000~19,000원(609~681)	1월 대비 약보합세
2014년	13,994(503)	13,845(498)	14,139(508)
평년	13,856(496)	14,660(527)	13,771(495)

□ 돼지

○ 3월 돼지 사육 마릿수 전년보다 증가 전망

- 후보돈 입식 증가로 모돈 사육 마릿수 증가
- 모돈수 증가로 돼지 사육 마릿수 전년보다 0.3~2.3% 증가한 1,000~1,020만 마리 전망

○ 1월 돼지고기 생산량 증가 전망

- 모돈 증가에 따른 자돈 생산 증가로 1월 등급판정 마릿수 증가, 돼지고기 생산량 증가 전망

○ 1월 탕박 지육가격 평균 4,200~4,500원/kg 전망

- 돼지 등급판정 마릿수 증가로 1월 지육가격 전년 동월(4,590원) 대비 하락한 탕박 기준 kg 당 4,200~4,500원 전망

○ 2월 탕박 지육가격 평균 4,200~4,500원/kg 전망

- 2월은 명절과 등급판정 마릿수 증가로 전년보다 낮은 4,200~4,500원 전망
- 3~4월은 개학 등으로 1~2월보다 높은 4,600원대 전망
- 5월, 6월은 등급판정 마릿수 증가로 전년 동월보다 하락한 5,000원, 5,300원 수준 전망

□ 육계

○ 2016년 1월 닭고기 총 공급량은 전년 동월보다 증가 전망

- 병아리 생산 증가로 금년 1월 도계 마릿수는 전년보다 2.7% 증가한 7,192만 마리 전망
- 닭고기 수입량은 전년보다 감소한 4,500톤 내외 전망
- 냉동 비축물량 전년 대비 24.8% 증가한 1,270만 마리

○ 2016년 6월까지 병아리 생산잠재력 크게 상승, 도계 마릿수 증가 전망

- 금년 1~6월 병아리 생산잠재력 지수는 전년보다 평균 14.9% 상승 추정
- 상반기 도계 마릿수 전년보다 5.7% 증가 전망

○ 2016년 상반기까지 육계 산지가격 전년 대비 하락 전망

- 12월 닭고기 공급 증가로 육계 산지가격 1,200~1,400원/kg 전망
- 금년 2~3월 공급과잉 지속으로 육계 산지가격 1,000원 이하 우려

○ 2016년 1월 닭고기 총 공급량 전망

(단위: 만 마리)

구 분	도계 마릿수(A)	수입량(B)	비축물량(C)	계(A+B+C)
2015년	7,192	585	1,270	9,074
2014년	7,003	987	1,018	9,008
증감률(%)	27	-40.7	24.8	0.4

* 출처 : 한국농촌경제연구원

5. 전남 시·군 농정 동향

■ 나주로컬푸드직매장 빗가람점 “성공적인 안착”

- 개장 40여일만에 1억6천8백만원 매출...일평균 200여명이 400만원 구입 -
- 나주로컬푸드직매장 빗가람점이 문을 연지 40여일동안 1억6천8백만원의 매출을 기록하고, 하루 평균 200여명의 고객이 약 400만원 가량의 품목을 구입한 것으로 집계돼 성공적인 안착을 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됐다.
- 3일 나주시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19일 임시개장에 이어 25일 정식개장한지 12월말까지 40여일동안의 영업현황을 분석한 결과 1억6천8백만원 가량의 매출을 올린 가운데, 판매 가짓수가 늘고 농산물의 안전성이 확인되면서 빗가람동 젊은 주부들을 중심으로 단골고객층이 형성되고 있다.
- 40여 일간의 영업을 통해 출하농가당 평균 30만원 가량의 소득을 올린 것으로 집계된 가운데, 다품목 출하를 하는 일부 농가들은 1백만원이 넘는 소득을 올리기도 했다.
- 로컬푸드통합지원센터 홍형석 센터장은 “아직 직매장 초기라서 농가에 돌아가는 몫이 낮은 편이지만, 올해에는 직매장 매출도 늘고 다른 로컬푸드 사업으로 확대하면 출하농가 소득은 더욱 높아질 것”으로 기대했다.
- 로컬푸드직매장 빗가람점에서는 농산물·축산물·가공식품을

비롯하여, 반찬류, 제과제빵, 화훼까지 다양한 품목들이 판매되고 있는데, 여느 대형마트에서 찾기 어려운 돼지감자·대마·여주·야콘·와송·아로니아·아마란스·작두콩 등 지역에서 생산되는 다양한 상품들이 선보여 소비자들의 다양한 기호를 맞춰주고 있다.

- 특히 당일 수확하여 판매되고 있는 신선 채소류의 경우 소비자들 사이에서 입소문을 타면서 매출이 꾸준히 늘어나고 있다.
- 나주시는 다양한 홍보 및 소비촉진 활동을 펼칠 주부 50여명으로 서포터즈를 구성하여 활동을 시작했는데, 서포터즈 회원들이 참여한 가운데 20종의 농산물을 무작위 추출하여 전문기관에 안전성 검사를 의뢰한 결과 모든 농산물이 검사기준을 통과하기도 했다.
- 로컬푸드직매장은 소비자들이 많이 찾는 농산물 및 가공식품에 대한 요구가 증대됨에 따라 농가조직화를 통한 기획생산에 더욱 힘쓰는 한편 농가가공활성화센터를 통해 가공식품의 종류를 더욱 늘리기로 했다.
- 나주시는 2016년에는 로컬푸드직매장 빗가람점을 기틀로 다양한 로컬푸드 사업을 확대할 계획이다. 원도심에 직매장 본점 및 로컬푸드레스토랑을 개장할 계획이며, 로컬푸드가공 활성화를 위하여 농가가공활성화센터를 상반기에 설치하여 운영할 계획이다. 이외에도 지역 식당에 식재료를 공급하는 등 다양한 지역농산물 소비를 위한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 출처 : 나주시

■ 올해 귀농·귀촌사업, 전국서 장성이 가장 잘했다!

- 전남 장성군이 올해 전국에서 귀농귀촌사업을 가장 잘해 '귀농 1번지'로서의 입지를 확고히 다졌다.
- 군에 따르면 지난 29일 정부세종청사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열린 '2015년 도시민 농촌유치지원사업 성과평가' 시상식에서 지난해 우수상에 이어 올해 최우수상을 수상하는 영예를 안았다고 밝혔다.
- 이번 평가는 농림축산식품부가 농어촌지역 활력 증진 일환으로 올해 전국 50개 지자체를 대상으로 추진한 도시민 농촌유치지원사업을 진단·평가해 우수사례를 발굴하고 인센티브를 통해 사업을 활성화시키고자 실시했다.
- 이에 군은 전국 자치단체 중에서 가장 높은 점수를 받아 최우수 기관에 선정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기관표창 및 포상금 2백5십만 원을 받았다.
- 이번 수상은 군이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추진한 '귀농귀촌 talk(톡) 시스템'이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는 후문이다. 이 시스템은 「도시민 실시간 상담 - 현장교육 추진 - 농지 및 주택정보 제공 - 지역민과 융화」 등 4단계로 이뤄졌다.
- 기존처럼 전화와 방문면담에만 국한하지 않고 홈페이지에 귀농귀촌 코너를 개설해 각종 정보제공 및 온라인 상담을 추진했으며, 상담 후 희망하는 작목교육까지 신속하게 연계했다.

- 아울러 한국농어촌공사와 업무협약을 통해 장성으로 이주한 귀농인들에게 신속한 농지정보 제공과 함께 임대차농지와 공사소유농지 등을 우선 지원받을 수 있는 길을 열어줬으며, 농업인단체들과 간담회를 개최하고 각 읍면별로 지역의 안내자인 행복멘토를 선정해 지역민과 자연스럽게 융화될 수 있도록 도왔다.
- 유두석 군수는 “우리 군은 천혜의 자연환경과 더불어 사통팔달의 교통여건을 갖추고 대도시와도 인접해 도시와 농촌생활을 모두 즐길 수 있다”며, “초보 귀농귀촌인들이 지역에 정착할 수 있는 기반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할 테니 매력있는 장성으로 오셔서 제2의 인생을 맘껏 펼치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 한편, 장성군은 지난 11월 ‘2016년 도시민농촌유치지원사업’에도 최종 선정돼 6억원의 사업비를 확보, 내년에 귀농귀촌교육 프로그램 실시를 비롯한 멘토농장 운영, 선도농장 실습비 지원 등 다양한 귀농귀촌 시책을 추진할 방침이다.

* 출처 : 장성군

6. 저비용 · 고소득 농업기술 정보

■ 콩 유기재배 종합기술 현장 실증사업 추진결과

-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국산 콩 유기재배 표준 종합기술을 확립
· 보급하여 재배면적 확대 및 농가소득 증대 -

□ 현황 및 필요성

- 전남 두류 유기재배면적('14) : 37.8ha(콩 17.6 · 녹두 14.0 · 팥 6.0 · 기타 0.2)
 - 장류 · 두부 등 고부가가치 유기농 가공품 생산에 필요한 원료곡 수요 증가 추세
- 콩 유기재배 확대 저해 요인 : 노린재류와 조류 회피(방제)기술이 미흡하고 제초노력 과다

□ 추진결과(2015년)

- 노린재류 회피(방제)기술 : 유인트랩+방제제(지누리) 또는 기피제(강낭콩 분말)
 - 상품(上品) 종자 생산 비율 11% 향상 : 73%(유인트랩 단용 62% 대비)
 - 톱다리개미허리노린재 친환경 방제제 선발 : 참청골드 등 3종(처리 3일 후 100% 살충)
- 잡초 및 조류 방제기술 : 멀칭+이식+보리 혼파(8kg/10a)
 - 제초노력 45% 절감 : 11시간/10a → 6, 조류 피해 100%예방 가능
 - 상품(上品) 종자 생산 수량 53% 증가 : 171kg/10a → 261

□ 앞으로의 추진계획

- 유기재배 환경에 적합한 기술정립, 매뉴얼을 개발하여 유기·생력 재배사업 확대 지원

* 출처 : 전남농업기술원

■ 흙토람, 새해부터 더 편리해진다

- 비료사용처방서 문자 서비스, 영양 진단 검색 등 개선 -
- 올해부터 흙토람 이용 시 비료사용처방서 발급 정보를 문자로 받을 수 있고 더 많은 작물에 대한 비료 사용량 정보도 얻을 수 있다.
- 농촌진흥청(청장 이양호)은 정부3.0 사업의 하나로 토양환경정보 시스템 '흙토람(<http://soil.rda.go.kr>)'의 기능을 개선하고 2016년 1월부터 PC와 모바일을 통해 개선한 내용을 제공한다.
- 우선, 농업인을 위해 농산물 인증 프로그램에서 흙토람 비료사용처방서를 전자문서로 조회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해 친환경농산물 인증을 간소화했다.
- 또한, 농업인이 토양검정을 의뢰하면서 전화번호를 제공하면 스마트폰으로 비료사용처방서를 발급받을 수 있다.
- 요소, 용성인비, 염화칼리처럼 단비(한 가지 비료성분만을 포함한 비료) 중심으로 비료사용처방서를 발급하던 것도 새해에는 농업인이 사용하는 복합비료를 중심으로 비료사용처방서를 발급받을 수 있게 된다.

- 시설 재배작물의 물관리처방서도 제공한다. 새해에는 우선적으로 시설 재배 토마토에 한해 물관리처방서를 발급하며, 점차 대상작물을 확대할 계획이다.
- 이밖에도 농업기술센터 등의 업무담당자를 위해 토양검정자료를 농림사업통합정보시스템(AgriX)에 제공하고, 토양검정 통계 자료 정보 조회 시 '경지 구분' 메뉴와 '친환경인증 통계' 조회 기능을 새롭게 추가했다.
- 또한, 팔 재배 적지를 추가하고 세종시 등 토지 이용이 급격하게 변화된 지역의 최신 농경지 토양 정보도 제공할 예정이다.
- 작물의 영양 진단을 위해 알맞은 양분 함량 정보도 검색할 수 있으며, 소면적 재배작물(토란, 종실용 들깨, 고려엉겅퀴, 갯, 삼백초, 더위지기)에 대한 표준비료사용량과 토양검정비료사용량 정보도 추가했다.
- 농촌진흥청 국립농업과학원 토양비료과 이덕배 과장은 “효과적인 과학 영농을 위해 흙토람 빅데이터를 활용해 지속적으로 정부3.0 사업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라며, “앞으로도 농업인들이 편리하고 과학적인 영농에 도움을 줄 수 있도록 흙토람 정보 서비스의 개선을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 출처 : 농촌진흥청

■ 농촌진흥청, '신기술로 무장한 수출 농업' 발간

- 농업 연구 개발 성과 활용 수출 현장 -

- 농촌진흥청(청장 이양호)은 농업 연구 개발(이하 R&D) 성과물을 활용한 수출 성공 사례를 모아 '신기술로 무장한 수출 농업'을 발간·보급한다.
- 이 사례집은 농촌진흥청에서 개발한 기술을 현장에 접목해 수출 시장을 만들어 낸 의미 있는 사례들로 구성했다.
- 책자에는 신선농산물, 가공식품, 농기자재 분야로 나눠 총 13개 사례와 각 사례별 수출 현황, 성공 요인, 수출 제품에 적용한 기술, 수출의 어려움과 발전 방안을 담았다.
- 신선농산물 분야는 국산 참다래 제시골드 품종, 국화 '백마'품종, 딸기 CO₂ 처리 기술, 숯 이용 에틸렌 발생제, 부패 방지 특수 살균패드 적용 사례를 실었다.
- 가공식품 분야는 새싹보리 추출물 활용 기술, 팥화미 이용 간편 양조 기술, 쌀 발효제 이용 잡곡 발효 음료 제조 방법, 가공용 쌀 품종 활용 사례를 소개한다.
- 농기자재 분야는 과채류 접목 기술, 미생물 활용 복합제 제조 기술, 전동식 전지가위, 회전식 제조 기술을 활용해 수출에 성공한 사례를 담고 있다.
- '신기술로 무장한 수출농업'은 각 도 농업기술원, 시군 농업기술센터 등 농촌진흥기관, 전문농업인, 수출업체, 수출단지 등에 무료로 배부하며, 농업기술정보 포털 농사로(www.nongsaro.go.kr)에서도 내려받을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 농촌진흥청 수출농업지원과 이병서 과장은 “그동안 부각되지 않았던 농업 R&D 성과물의 수출 사례를 지속적으로 찾아내 농업 분야의 수출 영역과 잠재력을 넓히고, 새로운 수출 품목을 만들어 가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 출처 : 농촌진흥청

■ 비파 자반증은 봉지씹우기로 예방가능

- 농촌진흥청 지원으로 비파 자반증 경감기술 연구추진 -

- 전라남도농업기술원(원장 김성일)은 2002년부터 전남의 비교우위 자원인 아열대 과수 비파를 지역특화작목으로 집중 육성하고 있다고 말했다.
- 우리나라의 평균기온이 2050년에는 지난 30년 간 평균기온 12.3℃보다 3.2℃ 상승하고 강수량은 16% 증가해 내륙을 제외한 대부분이 아열대화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특히 사과·배 등 과수의 재배적지가 북상하고 기후 변화와 함께 농작물 지도도 바뀌고 있어, 열대·아열대 작물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 비파는 아열대지역이 원산지라 겨울철 낮은 온도에서는 동해피해가 자주 발생하는 과수이다.
- 특히 늦가을인 11월부터 꽃이 피고 어린열매가 겨울을 넘기면서 동해로 열게 되면 자라지 못하고 떨어지는 피해를 입게 된다.
- 때문에 품질 좋은 과일을 안정적으로 생산하기 위하여 점차 비닐 하우스재배가 점차 증가하는 추세에 있다.
- 전국 재배면적은 105ha정도이고 전남 완도 장흥 등 남해안 지역에서 95ha를 재배하여 주산지로 떠오르고 있으며 재배농가는 200여 농가에 이르고 있다.

- 전라남도농업기술원에서는 2002년 전국 최초로 비파의 신품종 “미황”을 육성하였고 2009년에는 만생종인 “진왕” 품종을 육성하여 보급하였다.
- 이어 2014년부터 비파잎의 기능성분을 활용한 식초와 식초음료를 개발하여 특허출원하였으며, 비파잎의 대량생산을 위한 전용품종의 선발과 적절한 수확시기 및 수확방법 등을 연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 비파의 열매가 자라는 과정에서 과일표면에 보라색의 불규칙한 반점이 발생하는 자반증은 과일의 상품성을 떨어뜨려 소비자의 구매를 꺼리게 되는 원인이 되고 있다.
- 특히 자반증은 과일이 큰 “대방”품종에서 심하게 나타나고 있어 해결해야 할 시급한 문제로 꼽히고 있다.
- 이에 전남농업기술원 과수연구소 이소미 연구사는 농촌진흥청 지원으로 비파 과피에 발생하는 자반증 경감기술 연구를 2015년부터 시작하여 이중착색봉지를 12월 중순부터 씌워주면 자반증 발생률을 60% 낮출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고 밝혔다.
- 앞으로 전남농업기술원 과수연구소에서는 생리장애인 비파 자반증 발생 원인을 과학적으로 규명하고 품질 좋은 과일생산을 위한 재배기술을 체계적으로 연구하여 재배 농업인들에게 전파함으로써 맛과 향이 뛰어난 기능성 과일인 비파가 소비자들의 입맛을 사로잡을 수 있도록 현장기술 지원에 중점을 두고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 출처 : 전남농업기술원

■ 한라봉 자근 피해 걱정 이제 끝!

- 묘목 만들 때 접목 후 대목이 충분히 노출되도록 심어야 -
- 농촌진흥청(청장 이양호)은 한라봉 등 만감류를 재배할 때 문제가 되는 자근(自根) 발생을 예방하려면 묘목을 만들 때 대목(바탕나무)을 충분히 노출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 만감류 나무는 일반적으로 탕자나무 대목 위에 한라봉 나무를 접목해 묘목을 만들고 심는다.
- 농가에서는 한라봉 묘목을 50년 넘게 온주밀감을 재배하던 방식대로 대목 노출 없이 짧게 만들고 깊게 심기 때문에 자근이 발생한다.
- 특히, 묘목을 만들 때 탕자나무 대목의 가시다듬기 작업이 번거롭고, 깊게 심어 한라봉 나무의 자람세를 높이려는 잘못된 습관이 복합적으로 작용해 자근 문제가 커진다.
- 자근이 발생하면 한라봉 나무에서 나온 뿌리의 활력이 왕성해져 질소 흡수량이 많아지고 꽃이 적게 달려 열매 수량이 적어지고 품질도 나빠진다.
- 이에 자근 발생을 예방하려면 묘목을 만들 때 접목 높이를 6~10cm로 충분히 높이고, 묘목을 심을 때도 이 정도의 대목이 충분히 노출되도록 지면과의 간격을 두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 어린 나무에서 자근이 발생하면 모두 없애고, 다 자란 나무에서 발생하면 전체 뿌리의 50% 내에서 전부 잘라주는 것이 좋다.
- 자근이 발생한 나무는 수량이 정상적인 나무의 절반 이하로 떨어

지지만, 자근을 잘라내면 정상의 80% 이상까지 수량이 늘고 열매 크기도 정상 수준으로 회복된다.

- 농촌진흥청에서는 자근의 발생 원인과 생리에 관한 내용을 담은 책자를 만들어 농가에 보급한다.
- 자근이 발생하면 한라봉 나무에서 나온 뿌리의 활력이 왕성해져 질소 흡수량이 많아지고 꽃이 적게 달려 열매 수량이 적어지고 품질도 나빠진다.
- 이 책자에는 한라봉에서 자근이란?, 한라봉 자근 발생의 원인과 생리, 국내와 일본에서의 자근 발생과 문제점, 한라봉 자근 발생 피해 사례, 한라봉 자근 피해 방지 대책, 한라봉 자근 판별 방법, (부록) 한라봉 자근 나무와 정상 나무의 차이 등 총 7개 주제로 구성돼 있다.
- 농촌진흥청 국립원예특작과학원 감귤연구소 강석범 박사는 “접목 재배를 하는 과수는 대목 노출이라는 기본에 충실해야 한다.”라며, “이 책자를 활용해 자근 문제를 빨리 해결하고 한라봉이 과거에 사랑받던 과일로서의 위상을 되찾을 수 있도록 품질 좋은 완숙과를 생산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 출처 : 농촌진흥청

7. 정책 동향

◆ 농식품부, 「중장기 쌀 수급안정 대책」 마련

- 적정생산, 수요확대 등을 통해 3년 후 쌀 수급균형 달성 -

쌀 적정 생산 유도

□ 논에 벼 이외 타작물 재배를 확대하여 벼 재배면적은 적정 수준으로 유지한다.

- '16년은 쌀·농지 관련 사업 활용, 지자체 사업 연계 등을 통해 벼 재배면적 3만ha를 줄일 계획이다.('15: 799천ha → '16: 769천ha)
- '17년 이후에는 '16년 3만ha 감소 면적을 지속 유지하는 한편, 타작물 재배를 유도하는 생산조정제 도입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다.
- 아울러, 농가의 원활한 작목 전환을 지원하기 위해 밭 공동경영체 육성을 위한 기반을 구축하고, 논 타작물 작부체계 개발·보급 등 기술개발 등도 함께 추진한다.

□ 쌀의 고품질화를 유도한다.

- 「양곡관리법」에 따른 쌀 등급표시 사항 중 '미검사'를 삭제하여 등급표시율 및 완전미율을 제고할 계획이다.
- 공공비축 매입품종과 정부 보급종에서 다수확 품종 비율을 축소해 나간다.

- 농가에서 적정량의 질소비료(약 9kg/10a)를 사용하도록 맞춤형 비료 처방서 문자서비스 발송('16) 등 교육·홍보하고, 변동직불금 지급요건 중 질소비료 기준에 대한 점점을 강화할 계획이다.

□ 쌀 수급안정을 위해 민간·지자체의 역할을 강화한다.

- RPC의 유통·판매체계 규모화, 고품질 품종 계약재배 확대 등을 촉진하고, RPC의 저장능력을 '20년까지 전체 유통량의 70%로 확대('14년 45.7%)하기로 하였다.
- 지자체도 쌀 생산 분야에 투입되는 재원의 일부를 수급안정, 수출촉진 등 타 분야에 활용하는 등 쌀 적정 생산을 위해 노력할 계획이다.

□ 농지제도를 개편하고, 간척지 활용 방안을 개선한다.

- 지난 12.16일 발표된 '2016년 경제정책방향'에 따른 농업진흥지역 일부 해제 및 행위제한 완화 등으로 벼 재배면적이 '18년까지 약 1.5만ha 감소할 것으로 추정된다.
- 「간척지의 농어업적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16년 '간척지 활용 종합계획'을 수립할 계획이며, 쌀 수급상황을 고려하여 대규모 집단화된 간척농지를 수출·가공용 쌀 전문재배단지로 조성하고, 원예, 축산 등 고부가 농산업으로의 활용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검토할 계획이다.

□ 쌀 직불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한다.

- 쌀 생산농가에 지급되는 변동직불금이 쌀 생산 확대를 유발한다는 학계의 의견을 고려하여 '16년에 적정 쌀 생산을 유도하는 방향으로 쌀 직불제 개선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쌀 수요 확대

□ 사료용 쌀, 쌀 이용 술 산업 등 새로운 소비를 확대한다.

- 일본의 신규수요미 사업 등을 참고하여 사료용 쌀을 중심으로 비식용 신규 수요를 발굴하고, 그 생산·공급기반을 조성한다.
- 쌀 이용 술 산업 활성화를 위해 제도 개선 등을 실시한다.

□ 쌀 및 쌀가공식품 수출 확대를 위해 생산기반 조성부터 현지시장 개척까지 다양한 지원을 실시한다.

- 고품질·기능성 쌀을 생산하는 수출용 쌀 재배단지를 '쌀 수출 전문 단지'로 지정하여 육성할 계획이다.('15년까지 : 0개소 → '16: 7)
- 쌀 및 쌀 가공식품 수출업체에 맞춤형 정보 및 컨설팅을 지원하고, 한류 연계, 현지 유통매장 판촉 지원 등을 통해 국산쌀 및 쌀 가공식품 우수성을 홍보한다.
- 금년 한·중 정상회담을 계기로 중국과의 쌀 검역협상이 타결됨에 따라 내년부터 중국 수출을 추진함에 있어 수출경쟁력 향상을 위해 정부·지자체·수출가공공장(RPC) 공동으로 수출협의회를 구성하여 과다경쟁을 방지하고, 공동마케팅 활동을 강화한다.

□ 쌀 가공산업을 활성화하고, 쌀 소비를 촉진한다.

- 쌀가루 품질규격(KS) 설정, 관련 업체 쌀가루 협의체 구성, 쌀가루 사용 촉진 등 쌀가루 산업을 활성화하고,
- 쌀제품 개발·상용화 프로젝트를 추진하여, 3년간 쌀제품 R&D에 50억원을 투자할 계획이며,
- '쌀 중심 식습관 학교' 운영 확대 등 식습관 교육도 강화할 계획이다.

재고 관리

□ 정부 쌀 재고를 '18년까지 적정재고 수준인 80만톤 수준으로 감축한다.

- 이를 위해 국산 구곡(약 10만톤)의 가공용 판매가격을 인하하여 쌀 가공식품산업의 원료확보를 지원한다.
- 내년부터 식용으로 사용하기 어려운 국산 묵은 쌀('12년산 94천톤)을 사료용으로 공급한다.
- 또한, 기초생활보장법 개정에 따른 수급권자 확대 등을 고려하여 '16년부터 저소득계층에 대한 복지용 쌀 판매가격을 20% 인하한다.
- 재고량이 적정 재고량을 초과하는 경우, 사전에 지정된 연산별 용도에 따라 처분하는 등 재고관리 체계를 구축한다.
 - 예를 들어, 신곡은 군수용, 학교급식용, 복지용 등으로 공급하고, 2년차 이상은 가공용 위주로 공급하며, 4년차 이상의 쌀은 주정용, 사료용으로 사용한다.

□ 수입쌀의 관리 체계도 개선한다.

- 수입쌀에 대한 국내 수요를 정기적으로 조사하고, DB를 구축('16~)하여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한편,
- 수확기 등 시기별로 판매물량을 달리하여, 수입쌀이 국내 쌀 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해 나갈 계획이다.

* 출처 : 농림축산식품부

◆ 농업·농촌에 대한 2015년 국민의식 조사결과

□ 농업·농촌에 대한 지지도 확산, 도시민 과반수 농업·농촌 투자 늘려야

- 도시민 66.7% '농업·농촌은 미래성장 동력', 77.2% '국가경제에서 농업 중요', 농업의 다원적 가치 인정과 세금 부담 의향은 전년에 비해 가 4.3%p, 8.6%p 상승
- 도시민 50.7%, 농업인 73.8%는 농업·농촌에 투자를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에 동의하였으며, 투자를 줄여야 한다는 의견은 각 10.9%, 3.1% 그쳐 높은 지지를 보였음
- 농업 세제 혜택에 대해서 도시민 10명 중 6명이 동의해 2년 전 보다 2배 가까이 긍정인식이 증가했으며, 농촌복지 예산 증액에도 도시민 61.9%가 동의하여 전년보다 7.7% 상승하는 등 농업·농촌에 대한 투자 필요성 인식과 지지도가 상승

□ 귀농·귀촌 의향 증가하고 귀촌에 3배 더 관심 많아, 농촌관광 '숙박' 개선 필요

- 은퇴 후 귀농·귀촌 의향을 가진 도시민은 47.0%로 전년보다 8.0% 증가함. 귀농·귀촌 이유는 생계 수단보다 건강과 자유로운 삶을 원해서라는 응답이 많았으며, 귀농보다 귀촌을 원하는 비중이 3배 정도 더 많은 점이 이를 뒷받침함

○ 귀농·귀촌의 효과나 정책지원에 대해서는 농업인보다 도시민의 긍정 비율이 높음

○ 도시민들이 농촌에서 가장하고 싶은 것은 '지역축제 참여'이며 주말 농장 등 체험 활동에도 관심이 많은 것으로 조사됨. 농촌관광 시 가장 불편한 점으로는 '숙박과 취사'를 꼽아 개선 필요성이 제기되었음

□ '수입농산물 거부감 없다' 40% 육박, 국산농산물 구매 충성도는 지속해서 하락

○ 도시민 38.6%는 '수입농산물 거부감 없다'고 응답했으며, '수입농산물 인식은 좋지 않지만 저렴해 구매한다'는 응답도 25.7%로 '구매하지 않는다'는 비중(25.2%)과 비슷함

○ 국내산 농식품보다 가격이 저렴하면 수입산을 구매하겠다는 의향은 조사 대상 9개 모든 품목에서 전년보다 증가함. 가공식품과 쇠고기, 과일류 등의 국산 구매 의향이 곡류와 채소류, 해조류, 등의 국산 구매 의향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음

○ 농산물 시장이 현재보다 더 개방되면 수입품에 비해 가격이 비싸도 우리 농산물을 구매하겠다는 국산 구매 충성도는 2009년 37.0%에서 지속 하락해 2015년 21.0%로 떨어짐

□ 농업인 직업만족도는 정체, 생활만족도는 지속해서 상승해 10년 새 4배 '껑충'

- 농업인의 직업만족도와 행복도는 최근 2~3년간 정체 상태에 있으며, 재정과 관련한 지표 만족도가 상대적으로 낮아 '소득 불안정'이 가장 큰 원인으로 파악됨
- 반면, 자녀에게 농사를 권장하겠다는 의향은 1978년 조사 이후 처음으로 10%대를 넘었음
- 농촌생활 만족도는 불만족보다 16.4p 높은 37.4%로 조사됨. 다만, 지역사회복지시설에 대한 만족도가 25% 수준에 그쳐 여가/문화 및 의료시설 확충의 필요성이 제기됨
- 농업정책 수요와 예산 배분에 대해서 농업인은 FTA에 따른 피해보상과 소득안정을, 도시민은 지역경제 활성화와 농업경쟁력 제고를 우선 고려하기를 원해 견해 차이가 있음

* 출처 : 한국농촌경제연구원

8. 농림축산식품 수출입 동향

■ 이슬람권 농식품 시장 수출 동향 및 잠재성

- 세계 이슬람권 농식품 시장 규모와 우리 농식품의 이슬람권 수출 성장률은 빠르게 증가하고 있으며, 이러한 추세라면 중·장기적으로도 이슬람권 시장은 우리 농식품 수출에 있어서 주요한 시장으로 자리매김할 것으로 예상됨. 이슬람권 수출시장 성장 가능성에 대응하기 위하여 수출시장 잠재성을 분석하고 대응할 필요성이 있음.
- 이슬람권 농식품 시장 수출 잠재성 분석 대상 품목은 국내 생산 농가와 연관성이 높은 28개 품목류를 신선농산물·가공식품·축산물로 구분한 후, 각 품목류에 속하는 총 124개 품목들 중에서 수출액이 높은 품목들 중심으로 분석함.
- 품목류별 주요 분석대상 품목은 채소류(딸기·김치·채소종자), 곡류(쌀), 인삼류(홍삼·인삼음료), 커피류(커피조제품), 기타 조제농산품(아이스크림), 면류(라면), 낙농품(조제분유), 포유가축 육류(쇠고기·돼지고기)임.
- 우리나라에서 주목해야 할 이슬람권 시장 주요 국가는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사우디아라비아, 아랍에미리트(UAE), 이란 등이며 이들 5개 국가에 대한 우리나라 농식품 수출액은 지난 5년간 급격한 증가추세에 있음.
- 이들 국가 중에서 수출액이 높고 시장 분석 자료수집이 가능한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사우디아라비아를 집중 분석 대상으로 설정하였음.

- 잠재성 분석 결과 딸기·감·채소종자·버섯·인삼 등이 수출 잠재성이 큰 품목으로 분석됨. 감은 인도네시아와 말레이시아 시장에서 각각 80.8%, 86.5%, 신선딸기는 인도네시아 수입딸기 시장에서 86.5%, 버섯류는 말레이시아 시장에서 10.5%의 점유율을 차지함. 채소종자는 사우디아라비아 시장에서 일본(41.7%)과 태국(30.4%)이 우위를 점유하고 있지만 한국산도 4.8%의 점유율을 차지함.
- 향후 이슬람권 농식품 시장은 성장 가능성이 높으며 그중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아랍에미리트 시장을 주요 목표 국가로 설정하고 적극적으로 진출하려는 노력이 필요함.
- 그리고 이슬람권역 국가별 수출유망품목을 중심으로 시장 진출 여건을 분석하고 차별적인 진출 전략을 수립해야 함.
- 이슬람권 시장에서는 수출상품 관리가 엄격하므로 수입제도에 대응하고 품질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전략이 성과가 높을 것으로 예상됨.

* 출처 : 한국농촌경제연구원

■ “명품 한우”홍콩 쇠고기시장 문을 열다

- 대홍콩 한국 쇠고기 첫 수출 기념 명품한우 홍보행사 개최 -

-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동필)와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aT, 사장 김재수)는 한국·홍콩 정부간 한국산 쇠고기 검역·위생 협상이 금년 11월 19일자로 타결됨에 따라 한국산 쇠고기에 대한 홍콩내

인지도 제고를 위해 12월 23일 홍콩 Convention & Exhibition Centre에 위치한 Congress Plus에서 대홍콩 한우 첫 수출을 기념하는 홍보행사를 개최했다.

- 그동안 한국 정부는 한우의 대홍콩 수출을 위해 홍콩정부의 수입 위험평가 대응, 수출 검역·위생증명서 합의, 국내 수출 작업장 홍콩정부 등록, 홍콩정부 검역관의 한국 현지실사 등 수출에 필요한 검역·위생 절차를 순차적으로 진행하였으며 이에 따라 11월 19일부터 한국산 쇠고기의 대홍콩 수출문이 열리게 되었다.
- 금번 홍보행사에는 한우에 대한 인지도 확산과 조속한 수출기반 마련을 위해 홍콩 내 육류 전문수입 및 유통업체, 요식업체 관계자 등 60여명을 초청하였다. 이 행사는 한국산 쇠고기 첫 수출을 기념하고 한국 수출업체와 수입업체간 수출계약 MOU 체결은 물론, 한우의 우수성을 효과적으로 알릴 수 있도록 특별히 제작된 홍보영상이 상영되었으며, 홍콩시장에 첫 수출된 한우를 재료로 한 갈라 디너를 끝으로 행사를 마쳤다.
- 행사에 참석한 유통업체 관계자는 “이번 행사를 통해 수입을 긍정적으로 검토하는 계기가 되었으며, 정부 관계자가 홍콩을 직접 방문하여 한우의 안전성과 우수성에 대해 상세한 설명과 함께 적극적인 홍보를 함으로써 수출한우에 대한 신뢰성을 제고하는 계기가 되었다.”고 평가했다.

* 출처 :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

■ 농식품부, 「중장기 쌀 수급안정 대책」 마련

- 농식품부는 쌀 수급균형 및 적정재고 달성을 위해 중장기 쌀 수급안정대책을 마련
- 대책은 쌀 적정 생산(타작물재배 확대 등), 쌀 수요 확대, 재고관리 방안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음
 - (쌀 적정생산) 쌀·농지 관련 제도 개선을 통한 논 타작물 재배 확대·고품질 쌀 생산을 유도하고, 민관 협력체계 강화
 - (쌀 수요 확대) 사료용 쌀, 쌀 이용 술 산업 등 신소비처를 발굴·확대하고, 쌀 수출 전문단지 육성, RD 강화 등을 통해 소비·수출 촉진
 - (재고 관리) 가공용·복지용 쌀 판매가격 인하, 사료용 쌀 공급을 통해 적정재고를 달성, 수입쌀 연간판매계획 수립·공시로 국내 쌀 시장에 미치는 영향 최소화
- 이번 대책을 통해 3년 후 쌀 수급 균형 및 적정재고 달성 추진
 - 벼 재배면적 : ('15) 799천ha → ('18 추세) 749 → ('18 대책) 711
 - 1인당 쌀 소비량 : ('14) 65.1kg → ('19 추세) 57.4 → ('19 대책) 58.1
 - 정부 쌀 재고량 : ('15.11) 163만톤 → ('16.10) 134 → ('17.10) 113 → ('18.10) 80
- 수급상황 등 여건 변화를 반영하여 3년 단위로 점검·평가 후 보완

* 출처 : 농림축산식품부

9. 해외 농업정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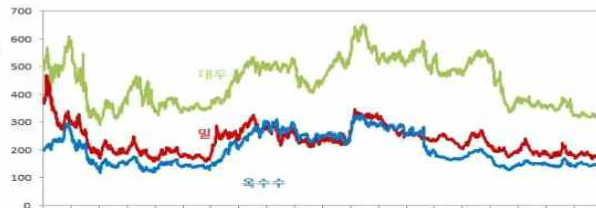
◆ 해외 곡물시장 일일동향 '16. 01. 04.(시카고 선물거래소)

연말 주요 곡물 가격 약보합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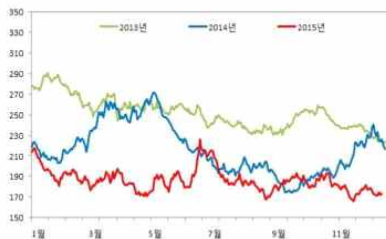
시카고선물거래소의 곡물선물가격

구분	기준일 ('15.12.31)	전일대비	전월평균 ('15.11)	2014 평균
밀	172.69	▲0.1%	182	216
옥수수	141.18	▼0.1%	144	164
대두	320.11	▼0.5%	319	455

주) 시카고선물거래소에서 거래되는 밀(적색연질밀; SRW), 옥수수, 대두의 근월물(밀, 옥수수: 16년 3월물, 대두: 16년 1월물) 정산가격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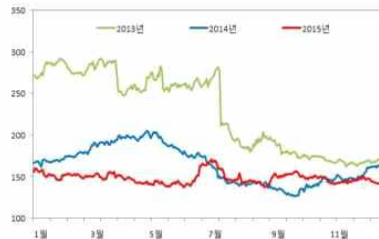


밀 선물시장 상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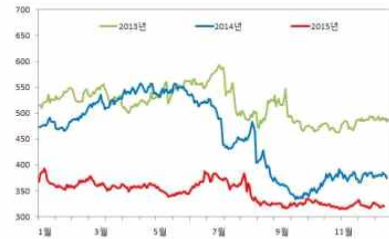
미국산 밀 선물가격은 연말 잠잠한 거래에 혼조세를 보이다 스킵버링의 영향과 미국 미드웨스트 지역 홍수, 러시아 겨울 밀 일부 지역의 냉해 우려 등의 영향으로 강보합 마감함. 24일 USDA의 보고에 의하면 밀 수출 15/16년 물 363,500톤 16/17년물 18,900톤으로 전망치와 비슷하게 거래된 것으로 전해짐.

옥수수 선물시장 상황



미국산 옥수수 선물가격은 연말 거래에 혼조세를 보였고, 전세계 공급과잉과 미국산 옥수수에 대한 수요 약세와 아르헨티나와의 경쟁 강화의 위기를 극복하지 못하고 약보합 마감함. 달러화 강세가 하방 압력을 더욱 가중한 것으로 여겨짐. USDA는 705,200톤의 옥수수가 수출된 것으로 전망과 비슷한 수준이라고 전함.

대두 선물시장 상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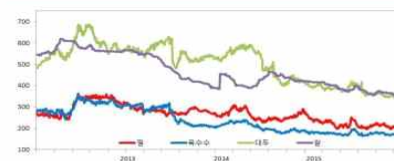


미국산 대두 선물가격은 기술적 매입세로 상승했던 전일과 달리 브라질 대두 생산 주요 지역의 강우가 다시 한 번 부정적인 영향을 미쳐 하락함. 주간 수출 판매 또한 대두 가격 하락에 영향을 준 것으로 보여 지는데 USDA는 지난 24일 478,800톤의 대두가 거래되었다고 보고 하였으며, 이는 예상했던 것 보다 하회하는 수준이라고 전해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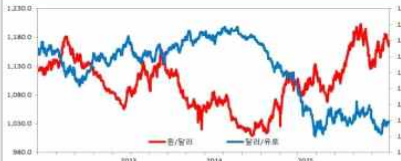
관련동향

- 미시시피 강 운항 폐쇄의 영향 불구 연말 연휴 영향으로 보합세 마감
- 국제유가는 미 원유 시추기 수 감소, 이란 공급 증대 불확실성 증가 등의 영향으로 상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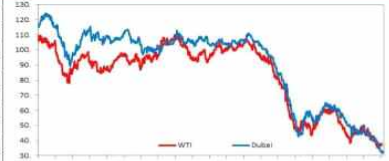
곡물 수출가격 (FOB)



환율



국제유가



구분		기준일	전일대비	구분		기준일	전일대비
곡물수출가격 (FOB)	밀	198	▼1.5%	환율	원/달러	1172.0	▲0.4%
	옥수수	163	▼0.6%		달러/유로	1.0926	▼0.4%
	대두	351	▲0.6%		WTI	37.04	▲1.2%
	쌀	358	-		Dubai	32.19	▼1.7%

주 1) 밀(US SRW Gulf), 옥수수(US 3YC Gulf), 대두(US Gulf), 쌀(Thailand 100% Grande B), WTI(2016년 2월물), Dubai(현물)

2) 기준일은 '15.12.30(수출가격), '15.12.31(환율), '15.12.31(국제유가)이며 자료출처(국제곡물이사회, 한국은행, 한국석유공사)의 업데이트 날짜에 따라 상이할 수 있음.

10. 2016년 달라지는 농정 시책

□ 달라지는 시책

주요내용	기존	변경
청년 농산업 창업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16년 새롭게 시작되는 시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원대상 : 만 18~39세 영농경력 3년 이내 신규 영농 창업(예정)자 60명(예정) ▶ 지원내용 : 영농 신규 창업자로서 「청년 농산업 창업 경진대회」를 통해 선발된 자에게 창업안정자금 월 120만원을 최대 2년간 지급
농 대·농 고 생 농 산업 창업 인턴제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16년 새롭게 시작되는 시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원대상 : 농대·농고 휴학생, 졸업생(5년 이내) 30명 ▶ 지원내용 : 시군 선정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선발된 자에게 연수기간 동안(평균 10개월) 월 120만원 지급
농기계 임대사업 개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단일사업으로 추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원사업 세분화(3개사업) · 농기계임대사업소 설치, 주산지 일관 기계화 지원, 여성친화형 농기계지원
농기계 안전장치 부착 지원사업 개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경운기 안전장비 지원사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 폐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업기계 등화장치 부착지원 · 국비 40%, 시군비 40%, 자담 2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업기계 등화장치부착 전액 보조 · 보조율 100%, 자부담 0%
무농약 지속 직불금 지원기간 연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ha당 논 400천원 발 1,000천원 · 3회까지만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4년차부터 기준액의 50% · 논 200천원, 밭 500천원
친환경농업장려금 차등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ha당 120만원 · 전 작목 동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ha당 120~150만원 · 과수, 채소, 벼 차등지원
농작물재해보험 및 농업수입보장 품목 가입대상 확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작물재해보험 품목 : 46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작물재해보험 품목 확대 : 49개 · 양배추, 밀, 시설미나리 추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업수입보장보험 품목 : 3개 · 양파, 콩, 포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업수입보장보험 품목 확대 : 4개 · 양파, 콩, 포도, 마늘

주요내용	기존	변경
친환경퇴비 생산시설 현대화 지원기준 개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개소당 지원한도 : 400백만원 ■ 융자조건(3년 거치 3년 상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생산자단체 및 농업법인 : 연리 3.0% · 민간(개인)업체 : 연리 4.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개소당 지원한도 : 300백만원 ▶ 융자조건(3년 거치 3년 상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생산자단체 및 농업법인 : 연리 2.0% · 민간(개인)업체 : 연리 3.0%
유기질비료 지원단가 등 기준 개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업경영체 등록정보에 등록된 농가 ■ 부속 유기질비료 지원 단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특등급 1,300원 · 2등급 700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업경영체 등록정보에 등록된 농지 ▶ 부속 유기질비료 지원 단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특등급 1,100원 · 2등급 800원
밭농업직접지 불제 지급단가 일원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목 및 품목에 따라 차등 지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목이 전(田)인 농지에 26개 품목 재배시 ha당 40만원 지급 ■ 지목과 관계없이 모든 밭작물에 ha당 25만원 지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급단가 일원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목에 관계없이 모든 밭작물에 ha당 40만원으로 일원화
토양, 용수안전성 분석비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16년 새롭게 시작되는 시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GAP 인증을 위해 주산지 등에 토양, 용수 분석비 지원
미국종합처리 장 전기요금 인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기요금 미 할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기요금 20% 할인

11. 사업신청 및 홍보 안내

◆ 2016 농촌 청년사업가 양성사업 공모

맞춤형 농업창업 지원을 통해 돈 버는 차세대 소득 창출형 농촌 청년사업가 성공모델 양성으로 「청년이 돌아오는 전남」 실현

1. 공모개요

가. 공모기간 : 2016. 1. 4. ~ 2. 29.(57일간)

나. 접수기간 : 2016. 2. 15. ~ 2. 29.(기간내 문서 접수분에 한함)

다. 지원 사업량

○ 사업량 : 11개 경영체

- '16 신규 : 9개 경영체

- '10~'15년 지원자 중 2단계 발전 사업비 지원 : 2개 경영체

※ '10~'15 지원자 중 사업추진 성과 및 발전 가능성이 우수한 2개 경영체를 선발 지원하고, 적정 자격요건을 갖춘 경영체가 없을 경우 신규자로 대체

○ 지원액 : 200백만원(경영체당 20백만원 이내, 도비 100%)

※ 총사업비의 20%이상을 자부담 사업으로 추진

※ 사업계획 평가를 통해 사업비 차등지원(※별도 계획수립 추진)

라. 지원 자격 및 요건

○ 만 18세이상 39세이하(※법인의 경우 대표자) 전남도내 거주자

※ 주민등록상 1977년~1998년까지 출생자(※ 단 '10~'15년 지원자 중 2단계 발전 사업비 지원자는 연령제한 없음)

마. 사업유형별 지원대상 및 범위

사업유형	지원대상	지원범위	비고
① 신규 창업형	농산물의 생산·가공·유통 분야 신규창업 희망자	농업분야 생산·가공·유통(판매포함)에 필요한 비용	
② 사업 확장형	1차 농산물 생산에서 가공, 유통(판매포함)등으로 사업 확장하고자 하는 자	가공, 유통사업 확장에 필요한 비용(신제품개발, 시장개척 등)	
③ 업그레이드형	기존의 농산물 생산과 가공·유통 사업 발전을 위해 새로운 아이디어 도입이 필요한 자	농산물 생산, 가공, 유통사업 발전을 위한 새로운 아이템 실천에 필요한 비용	

※ 보조사업비는 사업추진을 위한 소요 경비의 일부를 지원하되, 자산이 형성되는 농지 구입, 시설·장비 지원은 불가(※ 단 자부담 사업으로는 시설 및 장비구입 가능)

2. 사업신청 방법

○ 창업지원 사업 희망자는 사업계획서 [별지 제1호 또는 2호 서식] 를 작성 시군농업기술센터에 제출

※ 신규 지원자는 [별지 제1호] 서식, '10~'15년 지원자 중

2단계 지원 희망자는 [별지 제2호] 서식

※ 자세한 사항은 시군센터에 문의

* 출처 : 전남농업기술원

◆ 2016학년도 전남생명농업대학 신입생 모집

□ 모집과정 및 인원

수업연한	과 정 명	모집인원	자부담금
1년 과정 (3~12월)	청년창업반	25	300천원
	약용작물반	25	300천원
	유통·6차산업반	25	300천원
계		75명	

※ 모집과정에서 신입생 인원이 부족시 추가 모집하고 초과된 경우는 20% 내에서 추가선발 가능

□ 신입생 모집 전형 일정표

구 분	전 형 일 시	비 고
원서 접수	'16. 1. 6.(수) ~ 1. 29(금) 18:00 ※ 마감일 우편소인분까지 인정	본원 농업교육과 시군 농업기술센터
면 접	'16. 2. 17.(수) 10:00까지 입실 ※ 수험표, 신분증, 필기구 지참	본원 농업교육관 3층
합격자 발표	'16. 2. 19.(금) 10:00 예정	본원 홈페이지 시군 농업기술센터
합격자 등록	'16. 2. 19.(금) ~ 2. 24.(수) 16:00	본원 농업교육과 - 자부담 납부 영수증 제출
입 학 식	'16. 2. 29.(월) 예정	농업교육관 101강의실

※ 상기 일정은 신입생 모집 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 지원자격

○ 약용작물·유통·6차산업반

- 도내에 거주 ('16. 01. 04. 주민등록상) 하면서 친환경농업 실천

의지와 농산물 가공, 유통, 체험, 관광 등 6차 산업 추진 및 관심이 있는 농업인으로 시군 농업기술센터소장 또는 전남생명농업대학장의 추천을 받은 자 (연령 제한 없음)

○ 청년 창업반

- 도내에 거주 ('16. 01. 04.현재 주민등록상) 하면서 친환경농업 실천 의지와 농촌지역의 특성과 향토자원 및 농·특산물을 활용한 창업활동에 관심이 있는 청년 농업인으로 시·군 농업기술센터소장 또는 전남생명농업대학장의 추천을 받은 자 (만 45세 이하 ('16. 01. 04.현재 주민등록상))

※ 자세한 내용은 전라남도농업기술원 농업교육과 또는 시군농업기술센터 문의

* 출처 : 전남농업기술원

◆ 제17대 김성일 신임 전라남도농업기술원장 취임

- 지난 4일 오후 농업기술원 직원 및 농업인 등 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17대 김성일 전라남도농업기술원장의 취임식을 가졌다.
- 김성일 신임원장은 전남 영광출신으로 1986년 경기도 강화군농업기술센터에서 공직을 시작하여, 농촌진흥청 지도정책과, 국립축산과학원 등을 거쳐 전북 김제시농업기술센터 소장을 역임한 후 농촌진흥청 재해대응과장, 기술보급과장 등 농업현장과 농촌진흥청의 주요 요직을 두루 거친 이론과 실기를 겸비한 농업 전문가로 손꼽힌다.

- 취임사에서 “생명의 땅, 청년이 돌아오는 전남”농업발전을 위하여 첨단 농업기술을 영농현장에 신속히 확산시키고 농가의 실질 소득을 늘려 농업·농촌 미래를 밝히겠다고 말했다.
- 특히, FTA 등 급속한 농업환경 변화에 대응, 수출농업을 육성하여 농산물시장을 확대하고, 정보통신기술(ICT)을 활용한 농업의 첨단화·자동화를 위한 스마트팜 육성, 현장중심의 농업기술개발 보급과 미래 후계 농업인력을 적극적으로 육성하겠다고 밝혔다.
- 또한 전남의 농정을 기술력으로 뒷받침하고 농축산물 생산비 절감과 유기농중심의 친환경농업의 내실화, 나아가 GAP를 기반으로 한 친환경 유기농업으로 발전시켜 유통업자와 소비자 중심의 신뢰를 구축해 나가겠다고 강조하였다.
- 신임원장은 전문지식과 실무경험이 풍부하여 상황판단이 빠르고 현안대처가 매끄럽다는 평을 들으며, 농도로 대표되는 전남농업의 미래를 책임질 책임자로 기대를 한 몸에 받고 있다.
- 서울대학교 농업교육학 박사인 김성일원장은 부인 고은실여사와 사이에 1남 1녀를 두고 있다.

* 출처 : 전남농업기술원



주간

전남농업정보

67호
VOL

전라남도농업기술원 농업경영연구소

전남 나주시 산포면 세남로 1508 ☎ 58213
Tel. 061-330-2583 Fax. 061-335-4199